

데스크 시각



김미은 문화1부장

한 시간 내내 좌불안석이었다. 지난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3에서 열린 킨필 카슈닌 피아노 독주회에 다녀온 이들, 그 중에서도 A·B블럭 앞자리 관객들이었다면 참으로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날은 유난히 어린이 관객이 많았다. 7세 이상 관람가'라 하지만 둘러보니 그보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눈에 띄어 처음부터 걱정이 됐다.

순간, 한 달 전 극장 2에서 열렸던 피아노 독주회가 떠올랐다. 나와 대각선 방향에 앉은 아이는 처음부터 몸을 뒤틀더니 곧바로 잠이 들었다.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는 아이가 공연 중 깨 자신도 모르게 징얼거릴까 걱정이 됐다. 다행히 아이는 1부가 끝날 때까지 꿈나라에 갇혔다. (이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15일 공연장은 250석 규모 소극장으로 무대와 객석 거리가 유난히도 가까웠다. 눈에 밟혔던 아이들은 B블럭 가장 앞줄

엄마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에 앉았다. 노릇따처럼,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 첫 곡 '템페스트'가 연주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장난치며 시야를 방해했다. 잠 들어버린 손녀가 안타까운 옆 좌석 할아버지는 아이를 깨우느라 바빴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돌아가면서 마시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아이에게 버거운 공연

A블럭 첫째 줄에 앉은, 대역섯 살 정도 남자 아이는 더 놀라웠다. 연주가 시작되자 엄마에게 계속 말을 걸더니, 갑자기 일어나 B블럭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혹은 무대도 올라갈까 걱정이 됐다. 연주자 시선이 닿는 C블럭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1부가 끝나고 객석에선 불만이 터졌다. 관람을 방해받은 건 물론이고, 성격 예민한 피아니스트였으면 연주를 그만뒀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공연 관람 중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아이들은 2부에선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인 관객이라고 해서 다 관람 태도가 좋은 건 아니다. 어린이 관객보다 못한 몰지각한 성인 관객들도 많다. 몇 달 전 광주시향 공연장에서 겪은 일이다. 듣고 싶었

던 브람스 '교향곡 1번'이 시작되자마자 앞자리 여성 관객이 갑자기 '지휘'를 하기 시작했다. 난 이날 두 명의 지휘자가 연주하는 브람스를 감상해야만 했다.

고백하건대, 언젠가 공연 중에 내 휴대전화 벨이 울린 적이 있다. 급하게 공연장에 오느라 가방에 넣은 휴대전화가 가족의 것이었기 때문에 '백만 송이 장미'가 벨 소리로 한참 흘러나오는데도 난 몰랐다. 뒤늦게 알아채고 너무 창피한 나머지 객석 뒤로 간 뒤 서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난다.

최근 들어 무용 등 공연장에서 주최 측이 쉴 새 없이 터트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 또한 또 하나의 공해다. 드레스 리허설을 활용하거나, 적어도 작품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흐름'을 바가면서 셔터를 누르는 게 필요하다. 한때 요즘엔 감정 이입이 중요한 서정적인 장면에서도 연속으로 셔터를 눌러대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관객에 대한 예의

무대 위 예술가가 '최고의 상황'에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 예술가에 대한 관객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언젠가 만난 희곡작가는 소극장에서 공연을 볼 때는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객석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하거나, 한숨을 쉬게 되면 배우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꼭대 못하고' 작품을 본다는

설명이었다.

요즘 공연장이나 미술관에서 아이들이 많이 만난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게 해 주려는 엄마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괴육'이라 느낄 때도 있다. 연주회 내내 잠을 자는 아이에게 클래식 음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안 좋은 선입감'만 심어 줄 뿐이다. 솔직히 소극장 독주회는 어른 관객들에게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날도 앞자리에서 힘들어하던 어른 관객은 1부가 끝나자 사라졌다.

몇 년 전 오르세미술관에서 만났던 한 국인 가족도 생각한다. 계속되는 관람에 지친 아이에게 엄마는 "여기까지 오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며 관람을 중용했고, 아이는 울음을 터트렸다. 머릿속에 '우겨넣은' 그림이 아이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엄마들이여, 아이와 문화현장을 찾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라. '내 아이만 제일'이라는 생각 대신, 다른 관객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야 하지 않을까.

참고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 하나 추천한다. 오는 23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괴마 작곡가 광주다. '외계인', '우주여행' 등 초등학교생들이 만든 1~3분짜리 짧은 곡들이 연주된다. 아이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방귀 소리, 똥 싸는 소리를 악기로 들려주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4·13 총선이 끝난지 석달이 지나간다. 선거를 치를 때의 민심과 석 달이 지난 지금의 민심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를 치를 때 이 지역의 민심을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선거가 끝나고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언론 위주의 평가였다면 최근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작은 모임 등에서 평가가 많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것은 언론 단체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표현이고, 민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요동친다'가 아니고 차분하게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모임마다 이름과 내용이 있지만 광주지역에서도 '커피 파티'라는 모임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Party'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티'라는 뜻 외에도 정당, 단체, 그리고 소송과 계약의 당사자라는 뜻도 있다. Party는 원래 부분(part)을 뜻하는 라틴어 'pars'에서 유래되었다. 부분은 전체가 아니므로 다른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른 부분과는 필연적으로 '의견의 다름'이 있을 수 있다.

커피파티는 이런 '의견의 다름'을 사회라는 틀에서 '함께' 경쟁하는 관계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파티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정치의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임이다.

여기에서 '커피'는 사람들을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적 의미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진보 진영의 온라인 시민 정치운동으로 2010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 살던 한인 2세 사회운동가인 에너벨 박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문제, 오바마 정

부의 미국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발목을 잡는 정치행태로 사회가 양분되고 뭔가 잘못되어감을 느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피파티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민으로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권자 그리고 풀뿌리 자원활동가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막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보수 진영의 티파티(Tea Party) 운동도 있다. 티파티의 티(Tea)는 'Taxed Enough Already'의 머리글자이며 '이미 세금을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 '세금 더 많이 내기 싫다'는 뜻이다. 18세기 중반 영국이 식민지 미국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 화가 난 미국인들이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렸던 '보스턴 차 사건', 미국독립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보스턴 티파티'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세금인상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의 보수 공화당 지지자들의 정치운동이다.

다원주의에 근거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더라도 시민들이 그러한 절차에 부합하는 참여의식이 없다면 민주주의의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국민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정치판은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진정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실형 자신을 대신하는 사람을 뽑았을 지라도 그들이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자유와 민주가 약간은 상반되는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에 근거한 공동체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마당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따뜻한 커피 따듯한 차, 무엇이든 좋다. 시원한 냉수 한사발도 상관없다. 뭐가 됐든 앞에 놓고 파티를 만들어 보자.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보자. 새로운 시도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커피 한잔 하실래요?

社說

이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라 하겠는가

요즘 광주 지역 일부 경찰관들이 민원이나 사건 사고 처리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 많아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시민들을 보살피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엔 한 시민이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다툼을 목격하고 112상황실로 신고해 위치를 알려 주었지만 경찰은 주소나 전화번호를 정확히 대라고만 반복했다고 한다. 또한 뒤늦게 출동하긴 했지만 순찰차에서 내려 보지도 않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구의 한 병원에서 뇌진탕 사고를 당한 환자 가족이 경찰서를 찾아와 제기한 민원 처리 과정을 보면 경찰의 한심한 업무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시민은 서부경찰서를 찾아 "입원 중인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가던 중 넘어져 뇌수술을 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병원 내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지난 6일 광주 서구의 한 마트에 서 일하는 30대 여성은 같은 마트 내 한 상인에게 폭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기해자 측 주장만 믿고 상대방 폭행 사건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점포 내 CCTV 분석 결과 일방적인 피해자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인 셈이다.

물론 경찰이 격우에 시달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소소한 사건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을 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이해한다. 하지만 갑자기 난처한 경우에 맞닥뜨린 시민들을 위해 최소한 공정하게 처리는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앞서 예를 든 사건이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 수밖에 없다. 경찰의 신뢰를 높이는 길, 바로 주민 생활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도 못 연 민주평화교류원 해법 없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이 10개월 남짓 문을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화전당 부분 개관 당시의 상황이 변함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 일 중에서도 예술극장·창조원·정보원·어린이 문화원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민주평화교류원(민평원)만은 개원 시기가 조차 가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평원은 옛 전남도청 본관·전남경찰청 본관 등 6개 건물로 구성된 공간이며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거점이었다던 옛 도청 본관 등에는 광주항쟁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옛 도청본관 원형 복원 논란으로 전시 콘텐츠 구축 공사가 중단돼 개관에 연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진압군 총탄 자국과 시민군 상황실 등 유적을 문화전당 측이 훼손했으니 원형 복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전당

은 "복원 비용 확보가 어렵고 1년 6개월가량 개관이 지연되는 점도 걸림돌"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으로서는 당장 올 안에 민평원을 개관하지 못할 경우 내년 운영예산 배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다. 예산 주관 부처가 공사도 마치지 못한 공간의 운영비를 배정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광주시와 정치관 등 6개 건물로 구성된 공간이 며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거점이었다던 옛 도청 본관 등에는 광주항쟁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옛 도청본관 원형 복원 논란으로 전시 콘텐츠 구축 공사가 중단돼 개관에 연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진압군 총탄 자국과 시민군 상황실 등 유적을 문화전당 측이 훼손했으니 원형 복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전당

無 等 鼓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장 아래 정책조정·정부·민정·외교 안보 등 10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 비서관실을 이끄는 수장은 수석비서관으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민정수석은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실세 중의 실세'만 받아 왔다. 국정청·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할하며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다 보니 권력자 입장에서 불태 밭을 만 한 사람이 아니면 보내기 힘든 곳이다.

참여정부 시절엔 2004년 12월, 박정규 민정수석이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한 데서 1억 원여치의 상 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민정수석은 직무관련 범위가 넓고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직무상 포괄적 뇌물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유혹에 쉽게 노출돼 추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2001년 이전에는 민정수석이 사정비서관이나 법무비서관으로 불렸다. 김영삼정부 내내 사정비서관을 지낸 배재욱 씨는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한테서 법원의 회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정략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정부 법무비서관에 발탁된 박

주선 의원은 웃로비 사건 관련 사직동 팀 보고서를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나중에 무죄를 받았다. 박 의원을 구속한 신광욱 전 법무 차관은 2000년 1월 부활한 민정수석에 임명됐지만 이듬해 12월 수석 혐의로 구속되는 기연(高峯)을 쌓았다.

민정수석의 수난은 박근혜정부 들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초대 광상도 수석부터 3대 김영환 수석까지 3명이 하 나같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거나 사퇴했다. 불명예 퇴진 그림자가 이번에는 4대 우병우 수석에게 드리우고 있다. 상속제가산금을 몰지 않기 위해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에 팔았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68년 검찰역사상 첫 현역 검사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들춰보니 이번에도 그가 있었다.

번호사 시절에는 100억 원대 수입료로 구속된 흥남전 점 검사장과 정은호 전 내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계속해서 양파를 벗기는 데 걸린다. 민정수석의 수난은 언제 끝나리나.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민정수석

기 고



김미자 전남대 강사·문학박사

이 시대에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실력은 무엇인가. 서울대 조벽 교수는 전문성과 창의성, 인성을 꼽는다. 진정한 리더는 실력은 물론이고 그 실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성' 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연계되어야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은 당연하다.

자녀가 담임교사로부터 훈계를 받았다고 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쫓아가 교사 먹살을 집었다'는 기사를 보면, '스승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해지는

행복한 삶, '꿈'과 '인성'에서 길을 찾다

요즘이다. 무조건 내 아이를 감싸고도는 것이 '자녀사랑'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일곱 살 난 아이를 향해서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아이고~ 못살아"라고 한다면, 대단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그 아이는 결국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로 낙인찍혀서 살아갈게 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대부분은 일생동안 그것의 일부만을 활용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필자는 우리들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성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어간 '신화'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열다섯 살에 자신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27개를 적고 그것을 이루어간 존 고다드(John Goddard·1924~2013)가 대표적이다.

현대기업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일찍이 세웠다고 한다. 그가 '거복선'이 그려진 오백 원짜리 한 장으로, 조선소도 없이 해외 영입에 나서서 수주를 받은 일화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가 그의

잠재력을 '도전'과 '용기'로 발산하고 실행해간 증거일 것이다.

꿈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이다. 지난 학기 모 대학에서 일명 타타가 부러워하는 '치의예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의를 하게 되었다. 꿈과 직업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한 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각자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절반 정도는 꿈이 없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상당수의 학생이 치의예과에 입학한 현재,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에 있었다. 한 학생의 발표를 예로 들면, "치의예과에 입학했으니, 돈은 당연히 벌 것이고, 출세도 한 것이니 예쁜 여자도 결혼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겠다"는 것이 인성 목표의 핵심이었다.

'치과의사'만 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도록, 누가 이끌었다는 말인가. 우리 사회가 성공의 기준을 '자본'에 두고 있는 이상, 우리는 '행복'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자녀가, 학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책임의식을 배태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꼭꼭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출발이 아닐까 한다.

최근 중학교에서 한 학기는 기존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와 같은 평가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를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꿈'을 찾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게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히틀러와 같이 부정적으로 발산할 것인지, 발레리나 강수지, 축구선수 박지성처럼 긍정적으로 발산할 것인지의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꿈'은 각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나의 밖'으로 끌어내주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성은 '꿈'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실력'이자, '바탕'이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꿈'을 찾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키우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출발동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일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